

사설

한민족 모두 통일보살

남과 북의 이산가족 상봉으로 우리 민족의 질곡을 해방시키는 새로운 흐름을 연 8·15. 그 날 남과 북의 사찰에서 '민족의 자주와 단합, 조국통일 기원 남북불교도 8·15 동시법회'가 봉행되었다. 이 법회를 통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이 통일의 원동력이 되고, 이 땅의 불자들이 통일의 보살이 되어, 하루 빨리 이 땅에 불국토를 실현하는 큰 흐름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했다. 냉전의 어둠이 걷히고 화해와 평화통일의 분위기가 움터오는 이 시대를 맞는 불교의 큰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 민족 전체를 괴로움 속에 몰아넣고 있는 가장 큰 어두움은 국토의 분단으로 말미암은 민족의 분단이다. 그렇다면 중생의 고통 없애서 즐거움을 얻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승 정신에서 가장 서둘러야 할 불사는 위대한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통일 뒤의 세계가 민족의 열원대로 아름답게 펼쳐져 나가도록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통일을 향한 움직임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이해를 초월하여 통일 문제에 가장 앞장서야 할 종교계가 오히려 뒷전에 서는 것이 요즘의 현실이다. 경제계가 제일 앞장서고, 그 다음 정치가 따라가며, 종교계가 가장 뒤늦은 발걸음을 보이고 있으며, 그러한 종교

계의 뒤진 걸음 속에서도 불교계는 앞장을 서지 못하고 있지 않았던가 하는 아픈 반성이 있다.

이제 바뀌어야 한다. 통일을 위한 걸음이 정치적인 흥정이나 일시적 바람에 그치지 않고, 민족의 밝은 미래를 불국토 건설의 과정으로 삼는 우리 불자들의 불보전의 정신에 의해 중단없이 이어져 나가야 한다. 선과 악을 극단적 대립관계로 놓고, 상대방을 완전히 무력화시켜야 한다는 냉전 논리를 불교의 중도 연기 사상에 의해 극복해야 한다. 너 속에서 나를 보고, 나 속에서 너를 보는 해인이 민족의 화합을 이끌어내는 근본적인 관점으로 서야 하는 것이다.

이제 불자들이 앞장서야 한다. 부처님의 지혜를 몸으로 실천하는 그 첫 걸음이 바로 통일 불사에 나서는 것이다. 우리 개개인의 고통, 정신적인 황폐화의 뿌리에 분단과 냉전의 어둠이 놓여 있음을 바로 분단면, 바로 통일 불사는 우리 자신의 괴로움을 뿌리 뽑기 위한 정진에 다른 아닌 것이다. 통일이 단순한 국토의 통일에 그치지 않고, 남북한의 합쳐진 힘이 열 배 백배가 되어 복된 민족의 미래를 향해 뛰쳐나가는 것이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잊고 있는 우리 불자들의 사명이며 또 영광임을 깨닫고, 모두 통일보살의 길에 나서야 한다.

훼불, 치외법권 안된다

인류 문명의 장구한 세월을 주도해 온 농업사회는 이른바 면접사회였다. 땅을 중심으로 협동하여 일해야 생존이 가능했으므로, 자연히 혈연이나 지연으로 가깝게 맺어진 '낯익은' 사람들이 얼굴을 맞대고 사는 삶이었다. 그런 환경에서는 인간의 그 강렬한 본능적 이기심이나 사사로운 욕망들이 멋대로 들끓어오르지 않았다. 자기가 속한 공동체가 요구하는 관행과 규범을 성실하게 따르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산업사회가 열리면서 도시로 몰려든 '이방인'들은 여제되었던 이기심과 욕망들을 자유롭게 드러내다. 그러다 보니 '이기심들의 총물'이 빚어지고, 그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법이 사회계약으로 마련된다. 각자의 이기심을 최대한 충족시키기 위해 선택한 '욕망의 규제'가 '이기심의 합리화'였다. 근대 이후 산업사회는, 사회 운영의 전제로서 법의 성실한 준수와 그 엄정한 집행에 합의한 것이다.

또 다시 훼불 행위가 교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지난 달 경남 산청군 소재 3곳의 사찰의 불상과 탱화, 산신각이 연이어 훼손되었고, 경찰은 사건

현장에 있었던 봉고차의 차적 조화를 통해 용의자를 체포하여 범행을 자백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수사에 입하는 경찰의 납득하기 어려운 미온적 태도가 불교계를 더욱 불평하게 하고 있다. 명백한 불법 행위를 민감한 종교적 사안이라 하여 흐지부지 처리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혐의가 이번에도 반복된다.

법 집행 주체들의 난처한 입장도 충분히 이해된다.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비합리적 종교 열정과 그를 둘러싼 정치, 사회적 지형도의 미묘한 문제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도 이해가 간다. 그러나 그런 식의 정치적인 배려로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훼불 재발의 원인을 제공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양한 이익들이 충돌하는 근대 산업사회의 최소 운영 원리에 원칙대로 따르는 것이 옳다. 특히 특정 종교의 강한 독선과 배타성을 고려한다면, 반발하는 종교적 법행위는 오히려 더욱 엄정하게 법대로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명실상부한 다종교사회이다. 종교 이기심들의 충돌을 막아주는 최소한의 필요 조건은 엄정한 법 집행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독자의 소리

남한산성 만해기념관 민족정신 배우는 공간

남한산성에 만해기념관이 개관된 지 2년 반이 됐다. 기념관에는 조국의 독립과 자주를 위해 굳세게 살았던 만해 한운운의 정신이 살아있다. 그러나 아직도 남한산성에 웬 만해기념관이냐는 관망자가 많다. 만해기념관에서 산성의 역사와 만해의 정신을 떠올린다면 민족의 얼, 민족의 정신이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21세기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그 곳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가독교계 대학 직원체육 목사추천서 요구 당연시

숭실대학교와 같이 기독교 재단인 대학에선 종교적 차별이 있다. 예를 들어 기독교인이 아니면 교수나 직원으로 절대 안 뽑는다.

Y대학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물론 공공연한 일은 아니지만 지원자에게 개인적으로 목사 추천서를 요구한다. 이는 인간의 평등의식에 위배될 뿐 아니라 엄연한 종교적 차별정책

이다.

국가의 세금을 전혀 받지 않는 순수 종교재단의 대학이라면 문제될 게 없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게 교육계 현실 아닌가? 종교적으로 편파성을 나타내고 학생들에게 체질 수감을 강제하는 대학에 국가의 세금을 쏟아 부을 수는 없다.

국가에 이상과 같은 사실이 헌법 위반임을 알리는 헌법소원을 제출하자. 그렇지 않다면 동국대학부터 불교 신자가 아닌 교수들을 모두 없애버려라.

조계사 신협 횡령사건 원인규명 철저 재발방지

최근 교계 신문에서 조계사 신협 사건을 접하고 도대체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게까지 되도록 몰랐다는 사실은 더욱 이해하기 힘들었다.

이번 기회에 아예 예전의 사건들을 다시 철저히 조사해 근원을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사건이 나면 수습하기에만 바쁠 뿐, 그런 일을 미리 예방하지 못

하고 있는 현실을 불자들 모두가 깊이 반성해야 한다.

장윤석(경기 군포시 산본동)

지리산은 민족의 성산 식수발전설 절대 안된다

지리산은 1967년 국립공원 제1호로 지정된 만큼 빼어난 경관과 함께 민족의 애환을 간직하고 있는 민족의 성산이다. 그리고 불교문화의 보고도, 생태계의 보고도. 그런 곳이 식수발전 설로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니 안타깝다.

오염이 심한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할 생각은 않고 단순히 또다른 댐을 건설해 물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가 한심하고, 그런 정책들이 결국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다는 데 화가 난다.

정부는 댐건설 대안보다 환경부(수질 관리), 수자원공사(수량 관리), 기초자치단체(상·하수도 관리)가 따로 맡고 있는 수자원관리를 일원화해 통합관리체제로 전환하고 수량 확보 위주의 공급확대 정책에서 수요관리 정책으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최홍식(경남 함안군 병곡면)

독자의 시

산들림으로 산사에 비 온다.  
해거름너 후두둑 후두둑  
초록 생명들의 울려퍼짐  
하늘은 흑갈색 투성으로  
동강 난역장 구름이  
꼭 젖빛 하늘소 무리로 모여든다.

요사채 뒷마루에서  
스님네들 차 달이기 바쁘고  
늑죽한 곰팡내가 절간에 번져도

산사의 비

뜨거운 녹차에 꼬리를 감춘다.  
빛바루 밑에도 빗방울 듣고  
암로양이가 늑도 안 뜬 새 새끼들  
할고 씻기는 정성 알뜰하다.

산사에 비 온다.  
담들에 불 밝히고  
예불 목탁소리  
독도르르 독도르르  
계향 정향 회향 해탈향 해탈지전향...  
스님 염불자락 빗소리에 젖어도

본시 마음자리 갖는 법 없다.

뒤편 구름장 뜨뜻해 오고  
아궁이 속 벌레가 타는 장작불  
락타락 락타락 락락  
그 타는 열정 한번 허밍라.  
늑은 노승 허리부신 아랑곳 없이  
그저 풍경만 멍그렁 멍그렁  
방새 처란 깨어 세상을 재운다.

김해명(부산시 수영구 민락동)

독자기고

禪은 배우는 것이 아닌 경험하고 느끼는 것

지식과 상식은 생각 속에 있고, 과거의 것이다. 선은 느끼는 것이며, 생각 너머에 있다. 지식과 상식으로 선에 접근하지 말라. 생각으로 선을 더듬지 말라. 그것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요즘은 빛을 노래하는 장남들이 너무 많다. 그 목소리가 너무 크고 아름다워(?) 빛을 갈망하는, 빛을 보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림자가 빛으로 왜곡되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이 실로 열려스럽다.

선은 배우는 것이 아니고 경험하고 느끼는 것이다. 그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배워야 한다. 첫째는 선의 과정을 연구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선의 과정을 연구하여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의 과정은 처음도 놓아두고 마지막도 놓아두어야 한다.

선은 무아(無我)가 되는 법이다. 내가 있고, 나의 지식이 있고, 나의 생각이 있으면 선은 없다. "나는 없으면서 있는 존재다", 이것이 선이다. <금강경>에서도 "모든 것을 다 놓아라"고 거듭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너와 내가, 원수와 사랑이, 먼 곳과 가까운 곳, 이것과 저것, 보는 자와 보이는 자, 주는 자와 받는 자, 잘 하는 자와 잘 받는 자, 생과 사가 '하나'임을 어떻게 설명하고 배우고 연구하고 이해할 수 있겠는가? '물론 놓아서' 스스로 '하나'의 경지를 체험하고 '하나'가 되는 길밖에 없다.

물론 선의 방법론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방법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선을 자신의 상식 속으로, 자신의 관점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다. 도는, 내가 도를 얻는 것이 아니다. 나를 도 속으로 버리는 것이다.

서울을 구경도 못해보고 듣기만 한 사람이 서울 가 본 사람보다 서울 이야기를 더 잘 하니가, 서울 사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지켜보고 빙긋이 웃는다. 우리 모두 좀 더 겸허함을 갖자.

남영호 <대구 이화선원 원장>

불교 도메인 관리 절실

트'라는 문건을 통해 개인이나 일반 단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불교 도메인을 관리해야 한다고 역설했던 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의 우려가 가상 공간에서 불교의 '상업화'와 '왜곡'으로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으로 구현된 가상 세계는 이제 현재 사회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이 공간의 '주'인 도메인이 악용될 경우, 결과적으로 현실 세계와는 비교할 수 없는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네트망에 개설된 '조계종'이라는 홈페이지를 예로 들어보자. 우선 홈페이지 이름이 '저것이 중'이라는 위양상을 풍길 뿐만 아니라, 조악한 디자인의 홈페이지가 한국 불교의 수석 종단인 '조계종'의 것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다.

사이버 훼불의 심각성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간간히 발견되는 사이버 훼불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다만 더 많은 사례들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교계'지만, 별다른 제재 방안을 강구하지 못할 뿐이다.

교계 인터넷 전문가들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훼불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불교 위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종단 차원의 관리 기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목탁소리

오종욱 <취재2부 기자>

불교 도메인을 선점한 사람이 불교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고가(高價)에 도메인을 매매하는 등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교계의 적절한 대응이 없어 안타깝게 하고 있다.

상용 통신망 네트망에서 '조계종'이라는 홈페이지가 버젓이 개설되는가 하면 이후 코리야의 경제 사이트에서 불교 유사 도메인(bulko.co.kr)이 9백 만원에 공시돼, 교계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이번 경우는 '홈페이지 해킹' '계시관 비방' 등과는 달리, 상용 사이트에서 합법적으로 불교의 정당한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지난 4월 '불교계 도메인 등록·관리 및 웹사이

2000학년도 법사과정 경전연구원 신입생 모집

**1. 교과목 및 교수**

요일	과목	교수	내용
월요일	법화경(II)	박종교수(동산대)	대승경전의 꽃 법화경! 화엄귀일사상 강의
화요일	밀교의세계(II)	허일법교수(진각대)	밀교개론과 대일경·금강경의 핵심사상 강의

\* 경전개설과목 : 이항경, 반야경, 금강경, 유마경, 법화경, 능엄경, 화엄경, 육조단경, 비교종교, 중론, 해심밀경, 대일경, 금강경

**2.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정규반(30명) 통신반(30명)	① 불교대학(정규)이수자 ② 불교교양대학 이수자 ③ 과목별 이수 희망자	① 입학원서서 ② 주민등록등본 1통 ③ 본인합판사진 3매 ④ 불교교양대학졸업증 1통 ⑤ 자기소개서 1통	2000년 8월 1일~ 2000년 9월 2일(토) (서류전형)	매주 월~화요일 오후 7시~9시 (본원연구원 법당)

**3. 개강일시** : 2000년 9월 4일(월), 5일(화) 오후 7시

**4. 입학금** : 일십만원

**5. 졸업자격** : 3년과정(매주 2경전)을 이수한 분에게 전법사를 수여함.

**6. 원서문의 교부·접수** : 본 연구원 사무국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  
☎02)732-1206 ~ 8 / FAX 02)732-1207

법사양성 전문도량 **동산 불교 전문 연구원**

주부·직장인을 위한 불교대학(2년과정)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 대덕스님 및 교수들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교육과 직장인을 위한 2년 과정을 개설!

■ 모집기간 : 연2회(매년 2월, 8월)  
■ 모집인원 : 200명

**1. 교과목**

**1학년 교과목** : 근본불교·대승불교·비교종교론·불교성당론  
인도불교사·중국불교사·한국불교사  
유식사상·정토사상

**2학년 교과목** : 법회사상·반야사상·화엄사상·불교사회복지론  
불교학개론·선종사상·불교미술·밀교사상  
포교방법론

**2. 정규반, 주간반, 통신반**

**3. 문의처** : ☎02)732-1206-8 / FAX 02)732-1207

**4. 특전사항** : 조계종 포교사 고시 거쳐 포교사 자격증 취득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추천

대한불교 조계종 **동산 불교 대학**

2000년도 도시생활 포교자를 위한(1년과정) 한글의식교육원 신입생 모집

**1. 지도법사 및 교과내용**

개강일시 : 2000년 9월 2일(토) 오후 1시 30분

지도법사 : 권지홍 법사, 문준순 법사

한글불교의식 I(전반기)	한글불교의식 II(후반기)
· 아침·저녁으로 행하는 예경의식 · 사시 또는 형편에 따라 행하는 헌공의식 · 정기적으로 행하는 법회법회 · 송주 ..... 정암염불	· 백일·돌·생일의식과 결혼의식 · 장례의식(1) ..... 일반의식 · 장례의식(2) ..... 임종·매장·화장 · 재공의식 및 영혼천도를 위한 천도의식

**2.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정규반 50명	① 한글불교의식 희망자 ② 포교당 운영자	① 입학원서서 ② 주민등록등본 1통 ③ 본인합판사진 3매	2000년 8월 1일(화)~ 9월 2일(토)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3시 (동산법당)
연구반 20명	① 한글의식교육 이수자 (1년과정 연수교육)			

**3. 입학금** : 일십만원

**4. 특 전** : 수료자는 동산의식법사 수여

**5. 원서 교부·접수** : 본 연구원 사무국 ☎ 732-1206 ~ 8/FAX 732-1207  
(100-170)서울 종로구 견지동 13

**동산 불교 의식 교육원**